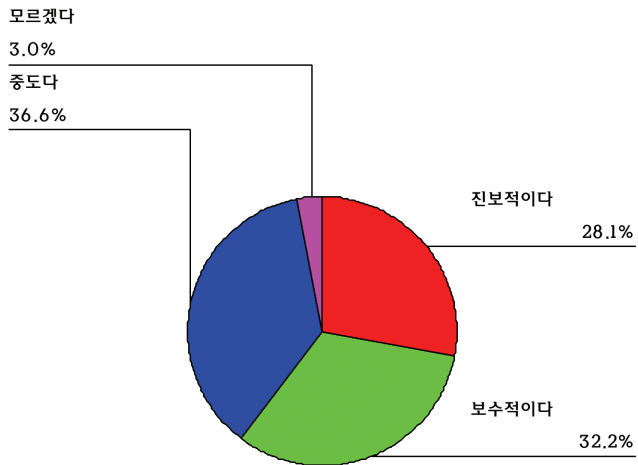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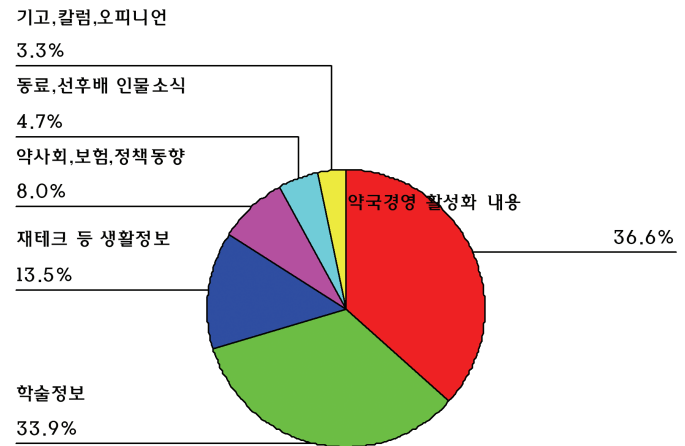
바라고 싶은 정보는 약국경영-학술정보 순

‘주로 보는 뉴스’와는 약간 배치된 응답결과

정치, 경제, 문화 쪽에서 어떤 성향?



약사공론에서 좀 더 얻고 싶은 정보는?



4면에서 계속

마찬가지로 주로 보는 기사에서 약국경영과 시장동향은 2번 질문에서 3순위였는데 3번 질문에서는 1순위에 오른 것은 '현재의 기사내용에 만족치 않는다'는 독자의 냉철한 심판 내지는 '향후 더 강화되면 보겠다'는 심리 등이 저변에 있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중요한 것은 뉴스는 평면적으로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반정보인 데 반해 약국경영등은 특정한 개개 독자의 입맛을 충족시켜야 하는 특화정보이기에 일단 2번 질문과 같이 평면선상에 올려놓는 답변은 항목자체가 약간의 무리였다. 한편 변의 질문으로 흥미로웠던 결과를 이끌어 낸 질문은 '선생님께서 정치 경제 문화 쪽에서 스스로 어떤

성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였다.

그 결과 진보와 보수 중도는 거의 균형을 맞추고 있었다.

진보-보수-중도의 균형

'스스로를 진보'라고 응답한 이는 28.1%, 102명이었고, '스스로를 보수'라고 자처한 이는 32.2%, 117명이었으며 '스스로를 중도'로 여긴 이는 36.6%, 133명이었다.

'모르겠다'는 3%, 11명이었다.

▶전국약사대회에 참석한 한 약사회원이 약사공론 부스를 찾아와 설문을 작성하고 있다.

표준오차를 감안하면 모두 오차범위내에 드는 답변이었다.

약사사회 구성원의 균질성을 입증하는 한가지 사례로 들 수 있으며 흔

히 약사는 의사등 전문직능 집단이 그렇듯 보수적이라는 편견을 불식시킨 답변 결과였다.

조동환기자 donhwan@kpanews.co.kr



www.kpanews.co.kr

KPANEWS·약사공론 지령40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회장 길광섭

수석부회장 김행권

사무총장 하태수

운영위원

박영근 김천식

김원명

김서기 송보완

김남재 이정구

이영욱

김종수 최우영

조근식 주수만

최성종

조보선 문영석

김태환 이병준

김동근

정하원 김의순

문경 정정철

외 동문일동